

이긴자 일대기 [1]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이하며, 필자는 이긴자 일대기를 출생기에 서 10대 시절, 20대 시절, 30대 시절, 40대 시절, 50대 시절에 이르기까지 파노라마 식으로 전개하고 이렇게 연재되는 기사 말미에선 이긴자 성도(成道) 이후 전지공사와 관련된 것도 함께 살피고자 한다.

이긴자의 생애는 대나무의 성장 과정과 같은 삶으로 점철되고 있다. 대나무는 자라나기 시작하는 첫째 마디가 썩지 아니해야 그 위에 둘째 마디가 이어지고 마찬가지로 둘째 마디가 썩지 아니해야 그 위에 셋째 마디가 생겨나 계속해서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 몸을 입고 태어나 반드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승리자의 자격을 획득해야만 당신 자신의 영원한 생명도 보장받는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기에, 50살에 성도하기까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파란만장한 절체절명의 삶을 이어가야만 했다.

마침내 완성자 이긴자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마귀에 의해서 끝장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있었던 하나님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당장 지구와 우주의 멸망을 획책하던 대장 마귀는 이긴자에게 삼킨 바 되어 소멸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인간들에게는 원래 하나님의 신분을 되찾아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조희성님의 생가 뒷동산 중구봉산(重九峰山) : 우저서원 뒤에 있는 해발 74m의 산으로 현재는 중봉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출생기

구세주 출생지와 관련된 예언이 「격암유록」의 출장론(出將論)에 ‘서호출생진인(西湖出生眞人)’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서(西)는 오행상(五行上) 금(金)이요, 물(湖)자는 물가(浦)자와 같은 뜻으로 서호(西湖) 즉 김포(金浦)에서 진인(眞人)이 출생한다는 뜻이다. 김포 감정리는 중봉(重峰) 조헌(趙憲) 선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조희성(曹熙星) 주님은 경기도 김포군 감정리에서 1931년 8월 12일(음력 6월 28일) 새벽 4시경 농부이신 부친 조경남(曹慶男)과 모친 오지덕(吳只德)사이에서 9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런데 증조부께서도 형제 두 분 중 둘째였고, 조부와 부친께서도 역시 둘째였으며 주님 대에 와서도 남자 5형제 중 둘째였으니, 4대를 계속해서

차자(次子)로 이어져 왔다.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째 아담은 생령이요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씀과 부합하는데, 둘째로 태어났다는 것은 살리는 영으로서의 구세주와 같은 둘째 아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외할아버지는 외손자가 신미생(1931년 생)으로 태어났고 양미(음력 6월)과 별수(음력 28일) 그리고 새벽 4시에 태어났으니까 으뜸 원(元)자 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임을 아셨다. 그래서 외손자가 새벽 4시에 태어났다고 하여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려고 했는데, 새벽별은 밝은 별인고로 밝을 희(熙)자, 별 성(星)자로서 희성이라고 작명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할아버지를 주장하시어 틀림없는 구세주가 갖게 될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목시록 2장 26절로부터 28절에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라는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10대 시절

어린 시절에 서당에 다니며 한학을 배울 때는 배워도 금방 잊어버려 훈장님에게 매를 맞는 일도 많이 있었으나, 중학교 때부터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처음에는 공부 잘 되지 않아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저녁 6시에 잠을 자면서 어머니에게 9시에 꼭 깨워 달라고 하여 하루 3시간씩 자고 저녁 9시부터 시작하여 밤새워 공부하였다. 잠이 오면 나가서 찬물에 목욕하는 등 기를 쓰고 공부하므로 코피도 부지기수로 흘렸다. 길을 가면서도 영어단어를 외웠는데 단어 카드를 만들어 한 손에 쥐고 외운 것을 다른 손으로 옮기면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최종에는 영어사전을 한 장 한 장 뜯으면서 암기하여 기어이 사전을 다 외웠던 것이다.

조희성님은 어린 시절부터 한번 마음을 먹고 뜻을 세우면 포기하지 않고 끝을 보아 손을 때는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주님의 집에는 우물이 없어 어머니께서는 동네 공동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곤 하였다. 집안의 온갖 곳은 일과 부업일을 도맡아 하시는 어머니가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아파서 집 뒤뜰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아침부터 땅을 파내려가 저녁이 지나고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한밤중이 되었다. 어린 키로 세 길이나 깊이 파내려가자 이윽고 물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조희성님은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야 지상으로 올라왔다. 물론 식사도 하지 않은 채, 부모님은 몹시 안쓰러워 몇 번이고 와서 “올라와서 식사하고 쉬었다가 하라”고 했지만, 물이 나올 때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한 것을 지켰던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여 목적인 비를 성취하였다.

20대 시절

조희성님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진학했을 때, 고향 김포를 떠나 서울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그 당시 성동경찰서 사찰계장으로 계시는 신당동 외삼촌 댁에서 형님과 같이 신세를 지며 학교에 다니다가 거기에서 나와 학교에서 지취하며 공부하였다. 수업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하였고 방과 후에는 성냥과 비누 등의 물건을 들고 집집마다 팔러 다녔다. 처음에는 보따리를 들고 다니며 집집마다 물건을 파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였으나 “너 같은 놈은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다니며 집집마다 물건을 파는 것이 마땅해! 이보다 더한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네게는 수월한 것 이야!”라고 생각하니 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었다. 시일이 갈수록 장사하는 요령도 생기고 거래처도 많이 확보되었다.

한번은 물건을 들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발소에는 비누를 많이 사용하니 이발소에 가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발소에 찾아갔더니 조희성님이 고학하는 학생이라고 하여 비누를 팔아 주었는데 이 용사 협회의 간부도 있는 사람의 주선으로 서울 시내 이발소에 비누를 팔 수 있었다. 그리하여 서울시내에 있는 이발소는 거의 다 비누를 대어 주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적지 않은 돈을 벌게 되어 고향에서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친구 세 사람을 데려다 학비를 대주며 같이 공부했다.

30대 시절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는 가운데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 마주한 적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이긴자는 서른 살에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심정으로 잠도 자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꼼짝하지 아니하고 30일씩 금식기도를 자갈 위에서 하고 또 유리 위에서 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모두 멈춘 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도로 집중했던 고로 가능했다고 한다.

1980년 8월 23일에 “이긴자가 아니면 역곡에 끌어올 자가 없어!”라고 영모님이 가장 단상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긴자가 30일씩 금식기도를 열네 번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증거했는데, 유사 이래 30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아니하고 열네 번째에는 자갈 위에서 금식기도 하고 마지막 열네 번째에는 유리 깔날 위에 맨살의 정강이로 무릎을 꿇은 채 3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행한 분은 오직 조희성님 뿐이다. 초창기에는 30일 금식기도를 의심하는 신자들에게 무릎을 까서 우리가 박했던 시퍼런 흉터 자국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초창기 신도들은 이긴자의 정강이에 ‘萬王之王’이라고 새겨진 흉터를 보았다고 한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성경 속의 진짜 하나님 말씀 3탄 The True Word of God in the Bible - Part 3

사후 영혼, 사후 영생은 없다.

There is no soul after death, no eternal life after death.

-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 마가복음 12:27, 누가복음 20:38
▶ You are greatly mistaken; God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 Mark 12:27, Luke 20:38
-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 욥기 14:10
▶ When a person dies, he disappears. When his energy is cut off, where is he? - Job 14:10
-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 욥기 14:14
▶ If a person dies, how can he live again? - Job 14:14
-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하리라 - 이사야 26:14
▶ For they are dead, that they should live no more; they are dead, that they should not rise. - Isaiah 26:14
-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누구의 죽음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 예스겔 18:32
▶ For I take no pleasure in the death of anyone, declares the Sovereign LORD. - Ezekiel 18:32
-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 마가복음 8:36
▶ What good is it for a man to gain a world and lose his life? - Mark 8:36
- 숨 한번 끊어질 때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계획은 사라진다 - 시편 146:4
▶ When one breath is lost, a person returns to dust and all plans disappear. - Psalm 146:4*

by Alice

이긴자 일대기

상단에 이어서

40대 시절

조희성 주님께서는 어린 저런 사업을 한 끝에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게 되자, 남대문 옆 영화빌딩 7층에 약 30평 가량 되는 사무실을 차리고 공영물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즉 사장으로서 그 회사를 경영하였다. 주로 상들리에라든지 라디오가 달린 까만 안경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였다. 한참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돈을 잘 버는 일을 하면서도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청와대 옆 청운동 입씨네 집에서 교인 삼십여 명을 모아 놓고 예배를 봤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던 조희성 주님은 선천성 앓은병이, 병어리, 소아마비, 장님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병을 고쳐줄 때에는 “누가 고쳐 주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약속을 받고 고쳐주었던고로 소문이 나지 않게 은밀히 숨어서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병이 나왔다고 누구한테 자랑만 하면 그 병이 도져 죽으니까 병이 나왔다는 말을 누구한테든지 하지 말라”고 신신부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병을 고쳤다는 것이 소문이 안 난 것이다. 그 당시 주님은 어떻게 하면 전도관 진리를 국민 모두에게 알리려서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이 청운동에서 치유기적과 기사이적을 많이 행할 때, 그곳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성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었다. 먼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은혜자로 알고 찾아와서 예배를 보는 것이다. 만약 기성 교인들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주님이 행하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체험했다더라면 그 주님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청운동에서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한창 할 무렵 지은복 선생한테 전도를 받고 망원동에 있는 해와 이긴자 집으로 갔다. 때문에 들어서자마자 바깥으로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생수체험이 오는데, 평소 영모님을 통해 받던 은혜보다 더 강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50대 시절

1980년 10월 15일 해와 주님이 “이긴자가 됐다!”고 하신 후 그날 저녁에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조희성 마귀를 죽이시고 완전히 점령하시시기까지의 내용을 간결하게 노랫말로 지어 30분 동안에 수정도 하지 않고 써서 밀실에 있던 식구들과 같이 찬송을 하게 되니 해와 주님을 비롯한 식구 전체가 울어 밀실이 울음바다가 되었던 것이다.

감람나무 우리엄마 조희성님 작사

1. 감람나무 우리엄마 밤 자욱미다 피암날새
공중경세 감람마귀 소양 하 여 박멸하고

2. 이길만은 우리인생 영대 없 이 뜻오는길
애굽박길 피우성이 땅새 도 목 마귀죽여

3. 사망권세 감람마귀 피속 예 서 육천년간
솔탄식 괴롭속 예 천축 하 계 죽어고내

4. 종교현한 가시밭길 외도 위 도 주님항계
천반만번 죽고죽어 최후 자 지 견디는길

5. 영대께서 그말마나 외현던 가 우성언가
태리시고 알리시는 위대 하 신 장원영대

6. 천대말시 받으면서 천고이거신 우리엄마
공주님에 감부원치 예산 수 고 하신영대

7. 최후까지 침수수없는 순간 예 도 견디어온
의식있어 죽어가도 낙심 없 고 말기면은

천반만번 곤두박질 강은포학 당하성네
육천년간 고대하던 시온성을 찾으성네
감람나무 우리엄마 우리위해 풍근했네
죽음인생 구원하신 고마우신 우리엄마
인생들은 더러워져 잔악하게 물들었고
원생영대 따라오면 영생복막 누리리라
자신속의 옛사랑을 잊이겨서 죽이는길
구세주의 우리영대 따라오면 영생하리
노영대는 어린성령 빔대시고 니우기시네
대신불고 죄물당당 우리들을 살려주네
감람나무 영영따라 행무지에 심물년간
피는물로 물들어서 예연등산 회복했네
마귀공격 빔발치도 쉬지않는 기도공격
영대께서 당당하여 우리들을 살려주네

60대 시절

鷄龍山上甲乙團 重大責任六十一 六十一歲 三五週年 振四海誰可知 鷄龍山上甲乙團 紫霞貫日火虹天 六十一歲始作立” - (격암유록)의 ‘갑을가(甲乙歌)’ 해설: 승리제단에 계시는 생미름불께서 61세 때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데, 삼오(3×5=15 十五眞主)의 운으로 그 이름을 세계에 떨칠 것을 누가 알았느냐. 생미름불이 계시는 갑을각 제단 상공에 자주빛 노을같은 이슬이 태양을 꿰뚫고 하늘에는 빛난 무지개가 서는데, 생미름불이 61세 되시는 해에 처음으로 서게 될 것이다.



실제로 조희성님이 환강 되는 1991년에 소사 역곡에 승리제단을 세워 사해만방에 알릴 기초를 마련하셨으며 또한 성탄절을 겸한 헌당(獻堂)예배를 올린 지 불과 열흘 후에 이슬성신이 내리는 가운데 제단 상공에 쌍무지개가 떴다. 그날이 8월 23일인데 고르바초프가 군부 쿠데타에 의해 3일간 연금되었다가 풀려난 날이다. 고르바초프의 석방은 <공산주의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이루기 위해 미북부처님의 분신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구약성서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때 나타난 무지개는 하나님이 더 이상은 홍수로 생명체가 멸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무지개였다. 마찬가지로 제단 상공의 쌍무지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를 이루겠다는 징표이다.*